

# “MB 대북정책 대전환 할 때 됐다”

##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인터뷰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사태 이후의 대북 정책과 관련, “이제 남북이 물밑 대화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한 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명박 정부 대북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8일 민주당 목포시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1시간 동안 이뤄진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박지원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 “한나라당의 3년 연속 예산안 날치기 처리를 모든 방법을 동원,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밝히고 대포폰 의혹에 대해서는 “진땀까지 흘려야 할 것”이라고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다음은 일문일답.

### “확전 막고 추가도발 응징 지시 연평도 포격 대통령 대응 잘한것”

-북한의 연평도 무력 도발과 관련한 이명박 대통령의 발연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남북 간의 포격 과정에서 ‘확전이 되지 않게 잘 관리하라’는 발언과 북한의 포격 중지 이후 ‘추가 도발시 몇 배로 응징하라’는 지침은 대통령으로서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서해에서의 한미 연합훈련으로 남북 간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한미 연합훈련은 전쟁을 방지하는 것이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해준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 국민적 감정도 고려해야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남북 간의 물밑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남북 간의 긴장 국면이 계속 이어지게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하면서도 개성공단 등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물밑 대화에 나설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한중 관계에 대한 우려도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군사적 입장에서 볼 때 ‘도랑에 빠진 소’의 입장이다. 미국 풀도 먹어야 하고 중국 풀도 먹어야 한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미국 풀만 먹으려 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반발을 부르고 있다. 당장, 중국은 천안함 사태는 물론,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서도 침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미-중 관계가 긴장관계를 띠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현명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될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남북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6자 회담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통해 북한 핵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입장은.

▲상호주의에 근간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철저한 실패로 나타났다. 상호주의와 대결주의를 내세운 군사 정권에서도 남북 간의 물 밑 대화는 꾸준히 진행됐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3년 동안, 북한의 군사적 도발만 있었고 남북 관계는 전혀 진전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후퇴했다. 그동안 여권에서는 틀만 나면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실패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함께 근간한 햇볕정책은 연평해전에서의 승리를 이끌었고 많은 남북관계의 진전

을 이뤄냈다.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며 역사다. 이제라도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의 대전환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 철학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솔직히 걱정되는 입장이다.

-내년 정부 예산안 처리와 관련한 민주당의 입장은.

▲시급하지 않은 4대강 예산을 삭감, 국방 및 서민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방 예산은 증액해야 하며 서민복지 예산의 확충은 불가피한 현안이다.

-한나라당이 4대강 예산을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국민은 한나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를 막으라고 하면서도 싸우지는 말라고 한다. 딜레마는 있지만, 민주당은 모든 힘을 모아 한나라당의 3년 연속 정부 예산안 날치기 처리를 막아내겠다.

### “한, 예산안 날치기 처리 막을 것 대포폰 진실 끝까지 파헤쳐겠다”

특히, 한나라당이 지난 2년 연속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하면서 호남 현안 사업에 큰 차질이 빚어진 바 있다는 점에서 보다 현명한 방법을 찾아내겠다. 예산안을 내팽개치고 장외 투쟁에 나서기보다는 원내에서의 협상과 압박을 통해 지면서도 이기는 방법을 모색하겠다.

-대포폰 문제는 어떻게 풀이할 것인지.

▲끝까지 진땀까지 흘려 물어내겠다. 이는 덮는다고 묻힐 문제가 아니다. 국민적 의혹이 계속 증폭되고 있다. 진실은 결국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낙관적 전망의 근거는.

▲여권에서는 내년 개헌과 행정구역 개편, 선거구제 개편 등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여권 내부의 분열은 불가피하다. 당장,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화에 나서며 ‘대포폰 국조 및 특검’을 주장하는 여권의 대권 주자가 나올 수 있다. 또한, 그동안 친여 성향을 보였던 언론 매체들도 KBS 수신료 인상과 종합편성채널 선정 등을 둘러싸고 이명박 정부에 등을 돌릴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포폰’의 진실은 모습을 드러낼 것이며 이는 이명박 정부의 도덕성에 치명타가 될 것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체류인원 절반 뚫·원자재 공급도 안돼 개성공단 조업중단 업체 속출

### 피해 최소 대책마련 절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정부가 개성공단 방북을 제한함에 따라 체류 인원이 절반 가량으로 줄어들고, 원부자재 공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상당수 입주기업이 조업을 중단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개성공단 입주업체 등에 따르면 정부의 방북 제한 조치로 인해 물류수송차량의 개성공단 통행이 제한되면서 조업에 필요한 원부자재 공급이 지난 24일부터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성공단은 현재 121개 입주기업이 조업하고 있는데, 대부분 업체가 원부자재를 3일 이상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4일 이후 입주기업들은 야간 연장 근무를 중단하는 등 조업물량을 조절하고 있지만, 원부자재가 나을 날까 공급되지 않으면서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게 입주기업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모두 가입하는 공식단체인 개성공단기업책임자회의의 관계자는 “물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조업을 중단하는 업체가 속출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121개 기업 중 대부분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부 기업은 원부자재 공급이 계속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북측 직원들을 휴가 보내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대부분의 입주기업은 장기적으로 완제품 반출이 중단되면서 납품 기일을 맞추지 못함에 따라 신용도가 떨어지고 거래가 끊기는 등 향후 주문물량이 줄어들까 우려하고 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전까지는 하루 단위로 개성공단을 왕래하는 평균 300대 정도의 수송차량을 통해 원부자재를 반입하고 완제품을 반출할 수 있었지만, 통행이 제한되면서 완제품을 반출할 운송 수단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정부의 방북 제한에 따라 현재 개성공단에 통행이 제한되고 있는 우리 국민은 모두 415명으로, 평소 700~800명 수준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입주기업의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원부자재의 반출과 완제품의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28일 “정부는 29일 개성공단의 방북 제한을 유지하되 필수 원부자재 반출과 완제품 반입을 위한 최소 인원의 방북을 허용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5~25t 규모의 화물트럭 49대와 차량 기사 49명이 내일 개성공단을 다녀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가스 및 유류, 식자재 등 생필품 운송을 위해 차량 8대와 수송인원 8명, 문무홍 개성공단관리위원장을 포함한 관리위 소속 4명, 공장에 주재원이 없는 등 일부 긴급한 사정이 있는 입주기업 직원 4명까지 포함하면 모두 65명이 29일 방북할 예정이다.

/최권원기자 cki@연합뉴스



### 힘겨운 난민생활

연평도 주민들이 28일 북한의 포격 이후 집을 떠나 임시숙소인 인천시 중구 대명사우나인 스포월드에서 힘겨운 난민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 韓·日의원 ‘北도발’ 공동대응

오늘 日 중의원서 합동총회...대북성명서 채택 주목

총회에서는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한일 양국간 협력·대응방안과 북핵문제 및 동북아 평화증진, 한·일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저출산·고령화 문제, 한일 경제병합 100년에 즈음한 과거사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이와 함께 재일한국인의 지방참정권 확보 문제와 양국 의원간 상호교류 및 공동연구 추진 문제도 중점 토의될 예정이다.

양국 의원들은 오전 의장단 선출을 이어 오후에 ▲안보외교위원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사회문화위원회 ▲법제지위위원

회 ▲21세기 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으로 현안을 논의한 뒤 본회의를 열어 합동토론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폐막에 앞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북핵 문제에 대한 공동성명서가 채택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총회에는 한국측에서 이 회장 과 이 간사장, 정의화 박종근(한나라당) 김부겸 조배숙(민주당) 부회장 등 여야 의원 40여명이, 일본측에서는 와타나베 코조(민주당) 회장을 비롯해 중·참의원 200여명이 각각 참여한다.

/연합뉴스

전복구이

전복스팀

전복문어찜

## 전복구이 전문점 전복장터

전복장터를 찾아주시는 고객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정해역 완도바다에서 직영 양식장을 운영하여 매일 싱싱한 전복을 고객님의게 올릴 수 있음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고객님의 한분한분이 최상의 만족을 느낄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 양식장 직영 도·소매
- | 활전복 전국 택배 가능 합니다.
- | 모든 메뉴 포장 됩니다.
- | 각종모임 환영, 룸 9실, 대형주차장 완비

일곡지구  
연초제조창  
SK주유소  
한양아파트  
현대아파트

20m

일곡지구  
롯데빌딩  
코카콜라  
해대  
금광아파트

**전복장터 | 예약문의 062-576-860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367-12

### 남성 휴대용 식물과 똑같은 내여자

[꿈꾸는 공주]

내 여자가 장만에 화제다 얼굴이 몸매가 모델을 뺀다는 거기에다 흔들며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미적경 보드랍고 말랑거리는 피부 촉촉이는 눈동자 가슴과 신체 부위가 섬세한데 키는 1m50이 되며 섹시하니 꿈인지 생인지 헷갈린다. 분능적인 성욕을 해소하면 정신 건강에도 유익하고 '성'명피 예방도 되니 내여자가 인기폭발도 볼까 난다.

주문량 폭주

※ 8만원 상당의 선물과 휴대용 가방도 드립니다.

(식약청 USA 통관제품)

## 인기폭발 “양코”

본 제품은 식약청 통관 미국 직수입품입니다. 30대부터 80대까지 지구력이 당당해 지므로 섭취하신 분이 다시 찾습니다. 본 제품은 의약품이 아닙니다.

농협 02302-469931(정의철)

생노병사 불노장생 복을 드립니다

사이텍 070-7786-6631 010-6306-7070 (미쓰고) 070-7786-9710 010-7102-7070

### 성공한 남자의 손목에는 언제나 JAKAL-

‘35년 전통’ 수공예 명품시계

오성코리아는 최근 35년 전통의 쥘러트 시계가 야심 차게 만든 100% 수공예 시계 ‘자칼 핑크골드 빅워치’를 출시했다. 300점만 한정 생산하는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가격 대비 품질과 디자인이 뛰어난다는 평가다. 우선 디자인이 수백만 원대의 해외 명품시계 못지않다. 도금부터 엘로우 골드가 아닌 핑크골드로 처리해 세련미를 더했다. 미네랄 라운드 강화유리를 채용해 스크래치 걱정이 없으며 최고급 소가죽 밴드를 사용했다. 클래식한 아라비아 숫자 판과 바늘과 밴드에 자칼 로고를 새겨 넣어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또한 철저한 A/S도 장점이다. 기능도 한층 강화됐다. 일본 완제품 자동 무브먼트와 기계식 작동원리를 채용했다. 날짜와 요일표기는 물론

년·월·일 표기, 낮과 밤 표기 기능까지 채용해 활용성이 높다. 회사 관계자는 “300대만 한정 생산하는 제품으로 희소성이 높고 가격이 합리적 이면서 디자인과 기능이 뛰어난 별써부터 반응이 뜨겁다”며 “남자의 맛을 한층 돋보이게 제작 됐으면서 장수는 물론 캐주얼에도 잘 어울려 실용적”이라고 말했다.

(MADE IN KOREA) 02-522-7667

300점 한정 생산 판매 자동기계식 명품시계